

연인과 볼까? 가족과 볼까?...즐거워 '시네마 여행'

올 설날 극장가는 눈길을 확 끄는 화제작이 적은 대신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대거 개봉,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일제하 경성을 배경으로 한 '라디오 데이즈'와 '원스어폰어타임'을 비롯해, 연휴 기간에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영화만 모두 6편에 이르고, 300만명을 넘어선 파죽지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도 연휴 관객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외화로는 톰 헵크스의 주연의 '찰리 윌슨의 전쟁'과 유덕화·이연걸이 함께 호흡을 맞춘 '명장'이 눈에 띈다.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말아톤'의 정운철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너는 내 운명' '사생결단' 등으로 연기 내공을 보여준 황정민과 전지현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휴먼 다큐를 찍는 방송 프로덕션 PD 송수정은 도둑맞은 카메라 가방을 찾아 준 한 남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 대박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 <전체관람가>

명장

'침묵' 등 감성 멜로로 유명한 진가신 감독이 처음 연출한 전쟁 액션 영화로 이연걸과 유덕화, 금성무 등 한 영화에서 보기 어려운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작품이다.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다 동맹군의 배신으로 홀로 남겨진 청나라 장군 방청운은 도적단에 들어가 우두머리 조이호와 강오양을 만나 피로 의형제를 맺는다. <18세 이상 관람가>

찰리 윌슨의 전쟁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소재로 한 영화로 논픽션 저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톰 헵크스, 줄리아 로버츠 등 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끄는 작품이기도 하다.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텍사스 하원의원 찰리 윌슨은 파키스탄을 방문,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무기 조달 계획을 세운다. <15세 이상 관람가>

더 게임

상대방의 뇌 이식을 통해 서로 몸을 바꾸는 위험한 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일본 만화 '체인지'가 원작이다. 희도는 나이 많은 재산가 강노식으로부터 재산과 젊음을 걸고 내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지만 게임에 지고 만다. 강노식의 뇌를 이식받아 노인이 된 희도는 또 한번의 게임을 제안한다. 신하균과 변희봉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6년째 연애중

오래된 연인들의 연애타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로 영화 주인공들처럼 스물 아홉 동갑내기인 김하늘과 윤계상이 주연을 맡았다. 베스트셀러 출판기획자 다진은 홈쇼핑 채널 PD 재영과 동갑내기 커플이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사촌이기도 한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넘나들며 거의 부부처럼 지내지만 너무 오래 사귄 탓에 그저 덤덤하기만 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라디오 데이즈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국 최초의 방송국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코미디 영화. 만사가 귀찮은 한량 PD 로이드는 조선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사랑의 불꽃' 제작을 위해 가수 마리를 주인공으로 결정하고 기생 명월, 아나운서 만철을 캐스팅 하지만 드라마 제작은 험경기만 하다. 코믹 연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류승범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마지막 선물 - 귀휴

남아 준 아빠와 길러준 아빠의 애뜻한 부정(父情)을 그린 최무성 휴먼 드라마로 신현준과 허준호가 주연을 맡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태주는 친구이자 형사인 영우의 요청으로 10일간의 귀휴를 받는다. 병에 걸린 영우의 딸 세희에게 간 이식을 한다는 조건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태주는 번번이 탈출을 시도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원스어폰어타임

일제 시대 경성 최고의 사기꾼과 도둑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한바탕 소동극이다. 1940년대 일제 치하의 경성, 일본 군부는 신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석굴안 본존불상의 미간백호상인 일명 '동방의 빛'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사기꾼 봉구와 '해당화'라는 도둑이자 내수 100단 재즈가수 춘자까지 '동방의 빛'에 관심을 보인다. <12세 이상 관람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4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전을 소재로 한 스포츠 영화로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대역이나 CG 없이 모든 핸드볼 경기 장면을 직접 연기한 문소리·김정은·김정란·조은지 등 배우들의 연기가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임순례 감독의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08
謹賀新年

한국의 전통 설날 맞이하여
서양과 동양, 한국과 세계를 잇는
특별한 고향을 통해 감동 나누는
행복 가득한 설날 피사시를 드립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웃고 행복을 나누어주세요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234-0234

안빛고시학원 (북구청일 234-0234)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

김영편입·PMS 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위

777-8088, 277-4388

www.kimyoung.com